

연중 제 12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 1독서 : 신명 30, 1-5

제 2독서 : 에페 4, 29-5, 2

복 음 : 마태 18, 19-22

# 순정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페 4, 32)

## 강론

## 소리

### 통일의 노래가 그치게 하소서

김교동 신부 / 함열 천주교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분단 50돌을 맞이하는 오늘에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염원의 희년이 되는 올해에는 이 노래가 아니라 통일의 기쁨, 하나됨의 감격이 넘쳐 흘러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바람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고자 하는 문민 독재 정권의 논리 속에서 진정 하나가 되기 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함에도 이것마저 경제, 사상과 이념, 권력안정이라는 안보의 힘에 맡기어 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50년이란 세월을 하나되기 보다는 갈라짐으로, 서로에게 불신과 아픔만을 심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현실에 안주하여 권력자들의 논리를 당연시 여기어 왔음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라진 지난 짧은 세월보다는 하나되었던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삶 안에서 우리는 한 핏줄, 한 형제,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낱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계속 갈라져 있어야 함은 커다란 비극이요, 서로를 원수로 여김 그 자체가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상처입니다.

하느님은 인간과 하나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친히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됨이 힘이 아니라 사랑임을, 차지함이 아니라 나눔임을,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임을, 당신 삶을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듯 그리스도인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도 지난날의 갈라짐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인간에 대한 지극한 섬김을 보여 주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도 북한 형제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상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가 울리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서로 원수가 되어 갈라지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에페 2, 14)

###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짧은 광고말, 제 물건 팔기 위한 말이라니 하고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다. 마침 우리는 명동 성당 공권력 납입에 대해서 정부(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을 잘 뽑았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텐데... 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마침 내일 모레가 선거날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시장(군수),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군의원) 등 네 사람을 한꺼번에 뽑자니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짜증 섞인 말들이 많다. 아닌게 아니라, 후보자 검증에 너무나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투표할 수는 없다. 물론 귀중한 한 표를 버려서도 안되고, 잘못된 제도는 다음에 바꾸더라도, 이번 선거만큼은 성실하게 치뤄내야 한다.

아이들이 반장을 잘 못 뽑으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고생을 하게 된다.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까지 잘못 만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표를 잘못 뽑으면 결국 우리들이 갑갑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 보고도 여태 눈치를 못 챘으면 앞으로도 고생 지지리 더해야 하고.

선거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선거판은 입 벌려 보고 엉덩짝 두들긴 다음에 골라 내는 소시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검증해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에 관한 일이라 도덕성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 순정이 산책



순교자 다웠다



# 성역이 필요없는 사회를 위하여

이병호 주교 / 천주교 전주교구장

지난 6월6일과 7일. 공권력이 명동 성당에 투입된 것에 대한 항의 및 속죄기도회가 교구 사제단과 평신도사도 직협의회 주최로 6월19일(월) 오후7시30분 중앙 성당에서 개최되었다.

교구 사제 80여 명과 약 2천여 명의 신자들이 중앙 성당을 메운 채 이병호 주교의 주례로 미사와 촛불행렬로 이어지는 침묵시위를 가졌다.

이날 주교님의 강론 전문을 소개합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이 땅에 정착되기를 바라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6일 명동 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건을 생각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나라의 갈 길을 잘 비추어 주시기를 빌고, 그 과정에서 교회와 선의의 국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숙고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1.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 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엇갈린 견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뿐 아니라 양식있는 국민으로서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의 사건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당국과, 성당을 피신처 삼아 찾아온 노동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중재하려던 교회 사이에 일어난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교회는 행정당국이 구사하는 표현대로, 마치 '치외법권적' 특권을 주장하고 '불법투쟁의 안전지대'를 자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본

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국가 공동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즈음 정부당국과 언론기관으로부터 흔히 듣는 반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말씀을 듣자면, 중세도 아닌 현대에, 그리스도교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교가 '성역'이나 '치외법권지대'를 자처하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번도 스스로 그런 특권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한국 가톨릭 교회의 상징인 명동 성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의해서 말하자면 강요되었고,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공권력에 쫓겨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곳을 찾아 명동 성당에 모여들었고, 성당 측이 그들을 끌어안아 주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중세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나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우리 사회 안에 것처럼 마지막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당 측이 스스로 떠맡지도 않았고, 국가가 법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은 이런 일이 대다수의 국민과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실상의 인정을 받고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까? 무엇이 명동 성당의 그런 역할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엄연한 법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가 그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었는데, 실정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듯한 역할이 명동 성당에 부과되어 왔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정법 내지 그 운용이 양심법과 너무나 명백하게 또 자주 충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할 경우 인간은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정법은 양심법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거기에 기초하지 않은 법은 사실상 법이 아닌 악법일 수밖에 없고 사람은 바로 그 인간성의 이름으로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



**모든 실정법은 양심법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거기에 기초하지 않는 법은  
사실상 법이 아닌 악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의 전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지금도 유효한 뉘른베르크 원칙에도 이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상급자의 명령이라는 법이 있었다 해도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윤리적 행동이 불가능하지 않은 동안에는 자기의 양심에 반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과연 군대라고 하는 거의 절대적 명령과 법을 생명으로 하는 체제 속에서 상급자의 명령과 군법에 따랐을 뿐인 하급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각자 양심을 거스려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실정법과 양심법 사이에 충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국민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에 봉사하기 위해서 쓰는 대신, 자기 개인이나 파당의 이익과 책략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눈에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때에는 사법부가 통치자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되어 그가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실정법 자체나 그 운용 과정이 양심법 혹은 자연법이라는 기초를 떠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쫓기던 양심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데가 명동 성당이었고, 거기서 양심은 공공연하게 실정법을 간행하는 기관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국민의 공감대와 성원 속에서 명동 성당의 그런 역할은 집권세력에 의해서도 사실상 인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6월 6일 이전까지는, 그 관행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힘으로 그런 관행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까? 경찰력에다 필요하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맞설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힘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맨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하면 그 때도 지난 6월 6일 처럼, 경찰 몇 명 보내서 피의자들을 끌어내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독재정권 시절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는 그렇게 쉬운 일을 자제해왔던 것입니다.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왜 필요합니까?

2.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방금 들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대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용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대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것을 자기네의 숨겨진 목적에 악용하는 한 전형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흔히 있는 사실 그대로, 실정법과 양심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예수께서는 그런 경향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구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대의 법전문가들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불잡아 온 여인을 가운데 세워 놓고 실정법이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예수님의 판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장면은 법적으로 전혀 허자가 없는 절차와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죄를 범한 여인이 변명의 여지도 없는 상황에서 끌려와 있고, 당시의 법이 그런 죄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여인에게 던질 돌을 하나씩 주어 들고 예수님의 판결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을 던지라는 판결이 떨어지면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바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바로 예수께 돌아서서 지금까지 그가 그토록 강조해 마지 않았던 자비와 사랑은 다 어디 갔느냐고 외치면서 그를 사치꾼으로 몰아 돌로 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하느님의 권위로 선포된 모세법을 무시하는 죄인으로 몰아 그분을 똑같은 궁지로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 보아도 우리는 이 장면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법의 본 취지와 아무 상관없이 없는 방식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음의 현장에서 여인을 잡았다면 함께 있던 남자도 분명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의 사회정황으로 보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남자를 같이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법이 공정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약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더구나, 그 여인을 끌어온

**인간의 양심은 정신 생명의 심장입니다.  
그것이 병들거나 굳어져 버리면 사람은 형체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자들이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대의 법률전문가로서 법을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걸로로는 그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여인은 그들이 숨겨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는 성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 올라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겠다는 것이 그들이 속에 담고 있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 여인의 수치심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고, 그 여인은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이 없다”고 구약성서 전도서(1,9)는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본심은 예나 오늘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질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법의 잘못된 운용이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건전한 양심에 토대를 두지 않은 법이 횡행하는 현상이라는 사실 역시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대목에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 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걸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거울로 하여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에만, 사람은 어둠 속의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착각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법의 잘못된 운용을 바로 잡아 그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주시므로써 어둠을 밝히셨습니까?

묵직한 돌맹이를 들고 씹씹거리며 답을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께서는 먼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따르면, 땅바닥에 쓰여진 글씨는 죄를 범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의 처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을 때 정상적이라면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의식하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처음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아직 자신의 죄상을 분명히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대답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거듭되는 재촉에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이제는 암시적 몸짓으로뿐 아니라 한결 더 분명한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려 쳐라.” 이



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바로 이어서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렇게 상당한 동안의 침묵과 상징적인 동작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었던 돌의 무게가 양심에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돌처럼 굳었던 양심이 부드러운 살이 되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살며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돌이 빠져나간 것은, 그들 가슴 속에서 돌심장이 빠져나가고 마침내 살심장이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그로부터 600여 년 전에 말해 두었던 예언이 거기서도 실현되었습니다. “그 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 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 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예레 31,33) 이제 비로소 법은 인간의 마음, 그 양심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법과 양심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 하나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마침내 죄지은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때의 상황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불쌍한 사람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사람, 둘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범죄의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과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다루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참된 의미에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있던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였다 해도, 그 행위는 당대의 실정법상 가장 정당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들의 양심 역시 영영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유는  
어떤 특정 종교의 믿음이나 특정 지역의 문화나 정치체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들이 돌을 던지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에 가로막혀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생명을 되찾는 순간, 실상은 그들 자신이 사람으로서 되살아 났습니다. 죽었던 양심이 소생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병든 인간을 치유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못 보고, 못 들고, 못 느끼고, 말 못 하고, 그래서 죽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이십니다. 인간의 양심은 정신 생명의 심장입니다. 그것이 병들거나 굳어져 버리면 사람은 형체만 남아 있을 뿐, 실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 요즈음 우리는 현대 사회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인정되는 의미의 성역이라면 그렇지도 않겠지만,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간으로서의 성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역이라는 말이 특정 개인이나 계층 혹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대건 고대건, 동양이건 서양이건, 종교나 문화 그리고 정치체제가 어떻든, 인간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역은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사목현장」에서 인간의 양심을 성역 정도가 아니고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뜻에서 지성소(至聖所)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란 구약시대 하느님의 집인 성전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계약의 궤를 보관하는 가장 깊고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대사제만 그것도 일 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제일 은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세계 사목현장은 인간의 양심을 거기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인간 안의 가장 깊이에 있는 중심이며 사람이 홀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지성소이다.”(16항) 따라서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유는 어떤 특정 종교의 믿음이나 특정 지역의 문화나 정치체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동 성당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쫓기는 양심을 비호했을 때, 온 국민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곳을 성역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 암울했던 시대, 군사독재 체제하에서는 교회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 길을 잘 찾아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뽑은 문민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정부 당국자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많은 신문 및 방송기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반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반론은 상당한 합리성을 지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국민들은 그동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 이들이 목숨을 바쳤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성인들과 양심가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광주의 항거는 그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온 국민이 마침내 민주주의를 한 걸음 크게 발전시켜 우리 손으로 문민정부를 세웠을 때, 우리는 참으로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민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축복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몇 개월 동안 우리의 그런 기대는 바야흐로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문민은 좋은 것이구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란 것이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선정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대는 확실히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법에 쫓기는 양심 같은 일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이른바 성역이라는 것도 필요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이런 믿음이 흐려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한 줄 알았던 그 시대가 정부 당국자나 일부 특수 계층이 주장하고 선전하는 만큼 변한 것은 아니라는 조짐을 여기저기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 당국의 국가관리능력을 의심케 하는 각종 대형 사고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을 경악과 분노 속으로 몰아 넣었던 각종 부정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에서 석연치 않은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는 척만 하다가 바로 복권시키거나 풀어 주고, 누가보나 책임이 그보다는 덜한 하급자만을 엄한 벌로 다스리는 솜씨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말이 사실로 입증되었던들, 이 사회 어딘가에 따로 장소적 의미의 성역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 재벌, 대자본 세력이 되어버린 언론 등이 점점 더 성역으로 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면 더욱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음을 여기서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법이 그대로 존치되고, 그로 인해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태동에서부터 잘못되어 수많은 양심수를 배출함으로써 악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법 자체에 하자가 없다 해도 그것을 잘못 운용하면 양심은 그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런 악법이 그대로 살아 있는 한, 양심은 그 실정법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 피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양심을 지키는 법 밖의 보루가 아직도 필요하고, 그 희생자들이 숨어들 곳은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현정권이 출범한 1993년 2월 25일부터 1995년 6월 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등 악법으로 정평이 나있는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 1,2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현재 각종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464명이며, 이들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가협에 따르면, 오늘의 이런 양심수의 수는 노태우 정권 시절 보다도 더 많은 것이라 합니다.

단순히 문민정부라는 구실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악법을 개폐하여 양심법과 충돌하는 일이 없게 하고, 실제로 성역이 없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눈에 명백히 드러나도록 법이 공정하게 운용될 때, 문민정부는 이름에 걸맞는 실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문민정부하에서도 양심은 여전히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가 제 길을 벗어나 한 곳에 쌓여 있다가 터지는 사고가 나면, 문민정부하에서나 군사독재하에서나 사람이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그러므로 나라의 살림을 걱정하시는 분들과 모든 선의의 국민들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명동 성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더 알맞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에 실정법 자체 안에 양심과 충돌하는 요소가 있거나, 그 운용

과정에서 그런 요인이 남아 있는 한, 그 양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숨어들 곳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 모두가 지켜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역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성역을 유린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맨손으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고 그 성역을 일단 짓밟아버리면, 그 순간 우리 사회는 숨통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극도로 절망하게 되는 개인과 집단들은 차츰 이성과 양심을 잃고 마침내는 못할 일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 그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인류가 이념으로 갈라져 이쪽 저쪽으로 나뉘던 시대가 차츰 사라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이 훨씬 복잡해진 모양을 하고 개인과 집단 사이를 가로지르는 현상을 체험합니다. 이 가운데 숨이 막힌다고 느끼는 개인과 집단이 있는 한, 그 수가 많지 않아도, 그들이 한 사회의 평화를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나라 안팎에서 점점 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힘은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이 막혀 마비되고 망가진 양심과 윤리감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지고 정신이 황폐해진다면, 개인소득이 2만불이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공장 굴뚝이 하늘을 찌른들 그것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낱 바벨탑에 불과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고 좀더 나은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실정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합시다. 더 이상 성역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다합시다. 그리고 악법이 그대로 살아 있고, 법을 잘못 운용하여 사회정의가 서지 못하는 구석이 남아 있는 한 우리 모두 그것을 고발하고 바로잡는 데 힘을 모읍시다. 특히 종교가 사람들의 양심을 지키는 데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소임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이미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인간성의 이름으로 지켜야 할 최후의 성역이며, 종교는 그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 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 8, 12)

**중앙 주유소**

전화주문 신속배달

강 경 화(미틸다)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 (0654)467-0350~1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풍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승삼(발라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잡간

요심이 (1138) 김병오

우리의 주장

우리는 지난 6월 6일과 7일 명동 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자행한 현 정권의 비도덕성과 문민정부의 허구성을 규탄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6월 16일자 이홍구 국무총리의 담화는 현 정부가 과오를 뉘우치지 보다는 다시금 정당화하는 태도로써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1. 양심의 소리를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성역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 1.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1. 명동 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한 김영삼 대통령은 사죄해야 한다.

1995년 6월 19일  
천주교 전주교구사제단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일동

교구 소식

- ※ 교황주일 2차 헌금 : 7월2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1. 축! 건진 : 7월2일(일) 오전10시30분 부안 성당
- 2. 교구장 사목방문 : 6월29일(목) 무주 성당
- 3. 천호 피정 안내 : 6월27일(화) 주제-하느님과의 일치, 강사-김준호 신부  
7월1일~2일 주제-하느님께 봉헌된 삶, 강사-장인산 신부, 문의 73-6600
- 4. 부제서품 대상자 선발예식 : 6월30일(금)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5. 가톨릭 문우회 모임 : 7월1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6. 가톨릭 언론인, 방송인회 모임 : 7월2일(일) 오전9시 전북일보사 앞
- 7. 초등부 여름연수 : 6월28일~30일 나바위 피정의 집
- 8. 장애인 협의회 미사 안내 : 매월 첫째주일 오후2시(군산 둔율동 성당), 넷째주일 오후2시(전주 가톨릭센터)
- 9.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 영성 피정(제4기) : 6월29일(목) 천호 피정의 집, 대상-덕진Co.
- 10.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6월30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 11. 휘폴라레모임 : 7월2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 ※ 축! 영명 : 29일(성페드로, 성바오로) 서석기, 김병엽, 김영신, 박창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김교동, 고봉호, 이득재 신부님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생수 공급합니다.  
**할티생수**  
<전주,이리 배달가능함>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86-9993(주) 221-8504(야)  
호출 015-680-6769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퐁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효자한의의원**  
한방각과, 비만,알려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우순(유스티노)  
유헌경(루시아)  
효자성당←→목화APT 사거리  
☎(0652)222-3129, 226-1075

이전개업  
**토성한의원**  
공만택(사무엘)  
박순실(라파엘라)  
중화산동 사거리  
비사빌아파트 상가 2층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이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86-1181, 80-1111(교)  
호출기 015-670-165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12주일(민족의 화해와 일치될 위한 기도의 날)**

1. 자모회 임원 개편 : 회장-문선자(안재래) \* 청소년부와 부장 겸임 부회장-양명숙(부리아나) 총무-노도화(바울라) 회계-이선화(벨라나나) 수고하시겠습니다.
2. 예비자 집중교리 : 26일, 28~30일 후 3시, 후 8시
3. 세례식 : 7월2일 전 9시(영세자들과 대부모께서는 8시30분까지 입장하세요)
4. 사목회 임시총회 : 27일, 전 10시(사목회 고문, 감사, 회장단, 각 분과 부장, 차장, 제단제장님께서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5. 비품미련 특별헌금 봉헌액 : 박정옥, 김종옥, 김정남, 박명수, 박정순, 이태순, 박남조, 이강순, 김정순, 이명래, 권철봉, 최삼만, 이순심, 송기화, 이영희, 김정숙, 김정남-각 2만원, 홍복순, 배정호, 김선자, 엄귀녀, 강갑순, 장양래, 진향환-각 5만원, 윤감옥, 김인관, 유영애, 백미순, 육인녀, 익명, 신윤기, 구희민, 윤유순, 엄태섭, 박영순-각 3만원, 송익규-20만원, 박태복-30만원, 황태연, 김진섭, 김윤섭, 익명, 권영옥, 정진옥-각 10만원, 박복남, 박수현, 정순옥, 박명숙, 정복자-각 1만원. \* 소계-217만원 \* 무게-3천113만3376원
6. 모임 : ①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직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제대회(28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9일 전 10시30분) ④올드레아(2일, 장엄미사 후)
7. 다음주일(2일) 교황주일 2차헌금 있음.
8. 금주 청소 : 남노 2.3만. 차주 청소 : 인후 1.2만

□ 지난주 봉헌금 : 1,079,780원 □ 교무금 : 1,489,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영

1. 본당 M.B.W. 묵상회 성료 : 62명 참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초등부 교리교사 여름 연수 : 28~30일 나바위
3. 병자 봉성체 : 30일(금) 오후 2시
4. 다음주일(7월2일)은 교황주일 : 2차헌금 있음.
5. 모임 : M.E.가족 모임-30일(금) 오후 7시반 성우회, 대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6. 전입을 환영합니다 : 임부전 수산나, 하신숙 메레사(완산반) 구 서 안토니오(다가 2만)

성당 청소 : 7월1일(토) 황금 궁전Pr. 성과 성전Pr.  
금주 전례 : 해설-형일순. 독서-유만수 부부.  
봉헌-송종열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지혜룡 부부  
봉헌-신태섭 가족

□ 주일헌금 : 588,400원 □ 교무금 : 1,703,000원  
□ 감사헌금 : 30,000원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남북통일 기원미사(민족의 화해와 일치될 위한 기도의 날)**

1. 모임 : ①성모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②꾸르실로 올드레아-29일(목), 백산바위 ③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다음주일 ④사목회-7월1일(토) 7시30분
2. 지속적인 성체조배 : 29일(목) 저녁미사 후-
3. 감사 : 서정희-3만원, 안모니카, 김 안나-각 2만원
4. 수녀님들 성령 세미나 : 26일(월)~29일(목)
5. 중·고 교사 연수회 : 24일~26일, 나바위 성당
6.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사연수 : 28일(수)~30일(금), 나바위 성당
7. 성당 청소 : 금주-성실한 동정녀Pr. 차주-사랑하옥 어머니Pr.
8. 금주 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이우동 ②송정자 봉헌-황대호 가정
9. 차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최원규 ②김미남 봉헌-박귀철 가정

□ 지난주 교무금 : 283,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연중 제12주일(민족의 화해와 일치될 위한 기도의 날)**

1. 금주 :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②교부금 남부주일
2. 성기정회 : 1일(전 11시)
3.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사연수 : 6월28일(수)~30일(금)
4. 애덕의 모후 꾸리아 발족 : 6월 25일 단장-조봉기(프란치스코) 부단장-김경철(모이세) 서기-서정희(세실리아) 회계-김연경(안젤라)
5. 성모성심회 임원개편 : 회장-조정자(세실리아) 부회장-박규복(베르디아) 총무-세순임(소와 데베사) 회계-장옥희(무갈라) 감사-김남희(요안나) 유진자(데보라) 수고하시겠습니다. 전임 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 평화상 임원동 봉헌해주신 분 정우진(이사악)-50만원, 조봉기(프란치스코)-10만원, 백홍기(도미니코)-80만원
7. 감사헌금 : 수입총 67만8천원(익명)-감사합니다.
8. 차주 : ①교황주일 2차 헌금 ②요셉회(후 6시) ③제속갈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④올드레아(후 8시)

□ 주일헌금 : 2,040,31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 부 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1.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루카 9, 23)
2. 축! 영명 : 본당 신부님 영명축하식 다음주 공식미사 후(7월3일) 축하인 없음.
3. 특별 강론 : 7월2일 학생미사(9:00)-인영균 본도회 수사 신부님
4.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안내 : 토요일 후 3시 교리, 후 4시 어린이미사 3. 빈미사 : 28일 저녁 8시(8구역8만), 29일 후 3시(8구역6만). 30일 후 3시(8구역10만) 저녁 8시(6구역8만)
5. 성령 기도회 : 27일 저녁 7시30분 "예수 성심 사랑"
6. 유아 세례 : 7월1일 후 3시(사부실에 미리 신청)
7. 초등부 교리교사 여름 연수회 : 28일~30일 나바위
8. 봉성체 : 30일 전 9시(사부실에 미리 신청)
9. 지선의 날 : 매월 마지막 수요일(28일) 정성껏 봉헌합시다.
10. M.E 가족 나눔 모임 : 27일 저녁 8시
11. 회의 : 올드레아, 풍송회-오늘 공식미사 후. 빈첸시오회-26일 전 9:30. 자모회-30일 전 10시. 꾸리아-7월 2일 후 2:30. 성지회-7월 2일 공식미사 후
12. 축하합니다 : 순결하신 어머니Pr. 200차 기념 26일 전 10시 단합대회-금산사 12. 선거의 날 : 27일 구내 가족 휴무 \* 나의 한 표로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자.
13. 축! 개업 : 평화 종합 카센터-이장희 불라시오 형제(팔복동 삼양사 후문 쪽 광안주유소 옆) ☎ 211-4379
14. 전매청 성화회 감사합니다 : 128,000원 봉헌

□ 지난주 봉헌금 : 1,699,730원 □ 교무금 : 1,878,000원